

5월 평균 최고기온, 역대 가장 높았다

지난달 전국 평균 최고기온이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73년 이후 가장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1일 기상청에 따르면 5월 전국 평균 최고기온은 25.5도로 역대 가장 높은 값을 기록했다.

이전까지 평균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던 해는 25.4도를 기록한 2017년이었다.

전체적인 전국 평균기온도 18.6도로 평년(17.2도)보다 높았다. 1973년 이후로는 18.7도를 기록한 2017년에 비해 역대 두번째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지난 5월은 기압계의 동서흐름이 대체로 원활해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았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특히 14~17일, 24~26일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따뜻한 남풍기류가 유입됐는데, 여기에 강한 일사효과까지 더해졌다. 전국에서 고온현상과 함께 5월 극값이 나타난 곳이 많았던 이유다.

그러면서 5월 전국은 건조했다. 강한 햇빛에 비해 비 소식은 눈에 띄게 적었다.

5월 전국 평균 강수량은 55.9mm로 평년(77.9mm~114.4mm)과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 1973년 관측 이래 아홉번째로 적은 달이었다. 일조시간은 1973년 이후 가장 길었고 상대습도는 가장 적었다. 강수일수는 역대 세번째로 적었다.

기상청 관계자는 "대체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많았고 지난달 중반까지 강수가 없었던 것"이라며 "후반에 전국적인 강수와 국지적 소나기가 있었지만 강수 구름대는 우리나라 북쪽과 제주도 남쪽으로 통과해 건조함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5월 황사일수도 0.2일로, 1981년부터 2010년까지 5월 황사 평년일수(1.1일)와 대비했을 때보다 적었다.

봄철 기온도 지난 5월 기온 특성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웠고, 강수량이 적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과 큰 기온변화를 보였다.

봄철 전국 평균기온은 12.7도로 평년(11.7도)보다 높았다. 1973년 이후로는 여섯번째로 높은 기온이었다.

일교차가 큰 이유는 대체로 기온은 평년보다 높았지만 3월 후반에 서부터 4월 전반, 4월 말에서부터 5월 초반에는 찬 공기를 동반한 상층 기압골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떨어져 쌀쌀한 날이 자주 나타났다.

올해 3~5월까지 전국 강수량은 173.9mm로 평년(209.1mm~260.4mm)보

5월 평균 최고 25.5도...1973년 이래 최고
평균 기온도 18.6도로 역대 두 번째 높아
평균 강수량은 55.9mm로 매우 적어...건조

다 적었다. 특히 3월과 5월이 평년 에 비해 강수량이 적었다.



기린초꽃이 피는 계절 3일 오후 경남 남해군 서면 인근 바닷가에 노란 기린초 꽃이 꽃망울을 터트려 눈길을 끌고 있다.

오늘 수능 6월 모의평가...응시자 5만2191명 줄어

탐구 문제지 오른쪽 색인 표기...과목 식별 쉽게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6월 모의평가가 4일 치러진다. 응시자는 54만1838명으로 지난해보다 5만2191명이 줄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4일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53개 고등학교와 지정학원 425개원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3일 밝혔다.

6월 모의평가에 지원한 고등학교 재학생은 지난해보다 5만4328명 줄어든 46만2085명이고 졸업생 등 수험생은 2135명 증가한 7만8098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부터 학생 수 급감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매년 수능 응시자가 5~6만명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14일 실시될 2020학년도 수능을 준비하는 시험이다. 시험 성격과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수능과 동일하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4교시에 치러지는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 시험지 색인 표기가 추가됐다는 점이다. 탐구영역은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과목 시험지를

포라내는 시간도 시험시간에 포함된다. 이번 장치를 통해 응시자들이 시험지를 한 장 한 장 넘기지 않더라도 오른쪽 선택과목 위치를 눈여겨 보며 빠르게 넘기면 쉽게 자신의 과목을 골라낼 수 있게 됐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 출제·체제과정에서 개선점을 찾아 2020학년도 수능에 반영하게 된다. 통상 6월 모의평가는 쉽게 출제된다. 더욱이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수능에서 국어 31번 문항이 지나치게 어려운 '킬러문항'이었다는 비판에 제기된 바 있다.

탐구영역 4교시는 1과목당 30분 내 문제풀이 및 답안지 표기까지 마쳐야 한다. 선택과목 순서에 따라 문제를 풀어야 하며 1개 과목만 선택했을 경우 4교시 전반부는 대기 시간이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응시생은 답안지에 사인펜 이외 연필·사프나 예비 표시한 필기구 흔적은 깨끗이 지우는 것이 좋다.

평가원은 이의신청 접수·심사를 거쳐 오는 17일 정답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성적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와 백분위·등급·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절대평가로 치러지는 영어·한국사 영역은 등급과 응시자 수만 기재한다. 필수과목인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표도 제공되지 않는다.

이번 모의평가 수험생 중 종종 시각장애 수험생에게는 점자문제지와 1·3·4교시 음성평가자료를 배포한다. 2교시 수학 영역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점보단말기를 제공한다. 경중 시각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확대·축소 문제지를 종종 청각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3교시 듣기평가 대본을 받아볼 수 있다.

수단수도 하르툼서군·시위대 충돌 우려

수단 수도 하르툼 전역에서 3일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격렬한 기관포 소리가 들렸으며 군인들이 민간 정부로의 정권 이양을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는 시위대 진영으로 이르는 도로들을 봉쇄하고 있다.

AP 통신 기자들은 이날 아침 일찍 공격이 시작되면서 거대한 연기가 치솟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수단에서는 국민들과 군부가 과도정부 구성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연좌농성이 수주째 계속돼오고 있다.

수단 군부는 지난 30년 간 수단을 통치해온 오마르 알-바시르에 대한 국민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지난 4월 알-바시르 대통령을 축출했다.

시위대는 그러나 민간 지도자들이 알-바시르 전 대통령의 집권당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정치적 네트워크를 해체하고 모든 국가 기관들에 대한 속청을 끝낼 수 있도록 3년 이내에는 어떤 선거도 치러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美 버지니아 총격범, 범행당일 사표

지난달 31일 미국 버지니아 버지니아비치시 청사에서 발생한 총기난사 사건 용의자 드웨인 크래덕(40)은 범행 전 직장에 일신상 이유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직장상사 역시 이번 공격 희생양이 됐다. 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와 CNN에 따르면 드웨인은 범행을 불과 수시간 앞둔 당일 아침 자신이 엔지니어로 일하던 버지니아비치시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이메일로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동기를 유추할 만한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사망한 12명의 희생자 중에는 크래덕의 상사 리처드 H. 내틀턴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크래덕이 내틀턴을 구체적으로 타겟으로 삼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내틀턴을 포함해 희생자 12명 중 11명이 시정 병료였고 이들 중 8명은 크래덕과 같은 부서에서 일했다.

목숨을 잃은 12명의 희생자 외에 4명이 병원에 입원했다. 입원한 부상자들은 수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며, 이들 중 3명은 위독한 상황이다. 크래덕 자신도 경찰과 대치 중 총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범행에 사용된 도구는 45구경 권총 2발과 소용기, 확장탄창으로, 총기의 경우 모두 합법적으로 구입된 것이다.

한편 지인들은 평소 크래덕을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크래덕과 수년 간 함께 일해온 조지프 스콧은 CNN에 범행 당일 화장실에서 이를 뛰는 크래덕과 인사를 나눴으며, 그가 자신에게 '좋은 하루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스콧은 크래덕이 늘 좋은 사람이었다고 설명했다.

인명을 요청한 또 다른 동료도 CNN에 크래덕에 대해 "좋은 사람"이라며 "괴물이 아니었다"고 묘사했다. 그에 따르면 크래덕은 크리스마스 즈음엔 행정직원들에게 사탕이 든 상자를 나눠주기도 했다.

다만 크래덕의 이웃인 클레리스 모델은 크래덕이 과거 자신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건넸다고 증언했다.

이라크, IS가담 프랑스인 9명 사형선고

이라크 법원이 2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한 프랑스 국적자 2명에 대해 추가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신화 통신이 홈스의 한 법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로써 이라크 사법당국이 IS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최근 사형을 선고한 프랑스인은 총 9명으로 늘었다.

프랑스 정부는 이라크 법원의 판결에 대해 프랑스인들이 사형을 면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달 28일 사형 선고를 받은 프랑스 국적자는 카탈 살람 포함 메드 엘-하르치우와 브라힘 알리 만수르 네자라로 신원이 확인됐다.

이들은 미국이 지원하는 쿠르드계 무장조직인 시리아민주군(SDF)이 최후 근거지인 바그다드를 탈환하면서 지난 1월 이라크에 남긴 IS 조직원으로 알려졌다. 당시 SDF는 이라크 정부에 프랑스 국적자 13명의 신병을 인도했으며 이 중 한 명은 무혐의로 풀려났다.

SDF는 최근에도 수백명의 IS 조직원들을 이라크 당국에 넘겼고, 이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사형선고를 받는 프랑스인도 늘어나고 있다.



모두,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력은요... 자체치료중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란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는 임신기부터 준비하시거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건강 IN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생활

영유아건강검진 중 자제조각질, 자발치로 중인 민력군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검진, 알코올검진, 영유아건강검진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콜센터 129] [고객센터 1577-1000]